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김 지 영[†]
충남대학교

이 현 립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상담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진로의사결정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대상은 대전시에 있는 4년제 남녀 대학생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상담집단에 15명, 집단상담집단에 15명, 통제집단에 15명씩 배정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과 진로의사결정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연구문제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은 받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향상되었다. 즉 상담을 받은 집단은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이 모두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진로의사결정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간에는 진로의사결정 수준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향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상담프로그램, 진로의사결정 수준, 개인상담, 집단상담

김지영은 충남대학교 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 이현립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지 영,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
전화 : 042-821-6152 E-mail : counsel@cnu.ac.kr

대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과 직업계획,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의 진로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요점이 된다. 진로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과의 초기면접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적응도가 낮고, 직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 신청 학생들의 주된 문제 원인은 진로방향이 부적절하게 결정되어 전공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수업시간이 힘들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호소로 이어진다.

이처럼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업과 진로문제이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김계현, 김인규, 민경화, 2000; 김성희, 1998; 김수연, 이은경, 1996; 김은산, 김경창, 이시은, 2000; 김지영, 2000;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연구부, 1999).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여 간혹 전과나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옳긴 학과에 가서도 진로를 걱정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 역시 전과나 편입 시 적성, 성격 그리고 흥미에 맞추어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선호직업이나 선호학과에 대한 맹목적인 선택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에서 진로를 위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며(이현림, 2000),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적극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진로의사결정 수준이란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 측정도구의 한 변인으로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교우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 직업계획수준은 미래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이행의 정도를 나타낸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은 전공이나 연구분야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이행의 정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한 효과검증 연구들은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진로의사결정 능력 중 진로의사결정 유형 향상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고향자, 1992; 김판환, 1997), 자신에게 맞는 직업군을 찾아보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김정희, 장현덕, 1991; 이수용, 1986; 이재창, 1992; 이효자, 1993; 이해영, 1997;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능력 중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하위변인인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과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집단진로상담에 관한 효과검증 연구(고향자, 1992)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진로상담을 받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간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 적용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상담결과에 대한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다음은 개인상담집단과 집단상담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상담현장에서 진로상담 신청 학생들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분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진로의사결정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진로의사결정 이론적 배경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개인의 특징과 의사결정 환경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고 이해할수록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Harren(1979)은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론에 포함된 의사결정의 과정, 의사결정의 특징, 학생이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환경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인식, 계획, 확신, 이행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인식 단계는 현재 진로계획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이다. 불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의 단계인 인식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때 더욱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되는 동기는 예를 들면, 전공을 택하는 데 있어 대학의 압력, 진로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데 있어서 부모의 압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초조감과 생계에 대한 압박,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더 많은 학교교육을 요구할 때 오는 압박감 등이다. 둘째, 계획 단계에서는 양자택일, 확장, 조사와 구체화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를 갖추 수 있다. 셋째, 확신 단계에서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동기를 친한 친구, 부모 등과 함께 의논해 보고 그들의 반응을 얻는다.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 부정적이라면 계획 단계로 되돌아가서 좀 더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학교 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얻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판을 한다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은 가치 있고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확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행 단계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Harren은 이를 다시 동조, 자율, 상호의존의 세 가지 하위 단계로 나누고 있다. 동조 단계에서 개인은 사회적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를 경험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자신의 욕구, 가치, 목표가 경시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경험한다. 자율 단계에서는 자신의 욕구가 주장되고 과대 포장되기도 하며, 상호의존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보적 및 상호적 작용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의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은 중요하며 개인이 내린 결정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진로의사결정의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개인진로상담과 집단진로상담의 선행연구 고찰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이용하여 집단 진로상담과 통제집단간의 상담효과를 비교한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능력 중 합리적 유

형과 직관적 유형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상담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 유형과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환(1997)의 연구에서 집단 진로상담과 통제집단간에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집단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는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에서는 두 집단간의 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업 계획수준과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에서는 집단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서는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있어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실시방법 간의 효과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으며, 단지 집단 진로상담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의사결정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비교한 학자들로는 Smith와 Evans(1973), Guido(1987), Rowe(1995), 김판환(1997)이 있다. 먼저 Smith와 Evans(1973)는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비교 연구에서 6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검사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에 학생들을 개인 진로상담집단과 집단 진로상담집단,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실험결과 진로결정 척도의 전체 점수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상담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직접적인 비교결과는 집단간 효과성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다.

Guido(1987)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진로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한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owe(1995)는 학업적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Texas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그 효과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판환(1997)의 연구에서도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효과 비교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 진로상담과 통제집단간에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개인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는 두 집단간의 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대전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로서, 교내에 게시된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4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에 배정된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

표 1. 연구 대상

구 분	실험집단		통제 집단	전체	
	개인	집단			
성별	남	7	11	4	22
	여	8	4	11	23
학년	1	1	3	6	10
	2	6	6	3	15
	3	5	1	4	10
	4	3	5	2	10
전 체	15	15	15	45	

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본 연구처치를 위한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총 9회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집단 1(개인상담집단)과 실험집단 2(집단상담집단)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진행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200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1회씩 개별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총 9번의 만남으로 진행되었다. 한 회기 상담시간은 50~6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1 대 1 상담으로 표 2에 제시된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내담자는 주어진 자료에 기록을 하고 이를 상담자와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자는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하거나 내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어서 설명해 주는 형식을 가졌다. 한 회기마다 주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 내담자의 개인차에 따라서 회기별 상담시간에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로 진로 의사결정 검사를 사용하였다. 개인상담은 개인별로 상담 첫 시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담 종결 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개인상담의 사전 및 사후검사 실시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2회씩 총 9번의 상담횟수를 가졌으며, 상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집단상담은 15명의 집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상담을 받게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과 동일한 표 2에 제시된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집단원들은 각 회기마다 주어진 자료에 개인적으로 기록을 한 후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듣고 다른 집단원들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방법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통된 상황이 제시되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및 사후검사를 위해서는 개인상담과 동일한 진로 의사결정 검사를 사용하였다. 집단상담은 상담 첫 시간에 일괄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상담 종결 시 일괄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 먼저 진로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에게 사전검사로 ACDM을 실시한다. ACDM은 내담자의 상담을 받기 전 진로 의사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이 검사는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상담이 모두 끝난 마지막 회기 때 사후검사로 사용되어 내담자의 진로결정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진로의 사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집단의 지도자를 소개한다. 내담자에게 집단의 참가이유를 이야기하게 하고 자기소개를 하게 함으로써 상담에 참여하는 목적과 동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내담자 각각은 개인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경위와 학교에 대한 적응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진로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2회기: 이 회기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단계로서 먼저 자신의 ACDM 검사 결과 나타난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 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을 확인한다. 먼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생활의 느낀점, 학교생활이 힘든 이유, 해결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적응인식을 높여서 적응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게 한다.

3회기: 직업 계획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알고 이에 적합한 직업군들을 살펴보기 위해 적성탐색검사와 성격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실시하게 되는 적성탐색검사는 Holland의 진로탐색 검사(SDS)에 기초를 두고 안창규(1996)가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탐색 검사로부터 추출한 6가지 진로유형 실재적 유형(R), 탐구적 유형(I), 예술적 유형(A), 사회적 유형(S), 기업적 유형(E), 관습적 유형(C)으로 적성을 구분 하였다. 각 24문항씩 총 144문항으로 나뉘어지며 각 유형별 신뢰도는 .68~.84로 나타났다. 성격검사로 는 Jung의 이론을 토대로 성격 유형과 진로 및 직업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Myers와 McCauley(1985)의 연구를 김정택과 심혜숙(199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EI지표는 .86, SN지표는 .85, TF지표는 .81, JP지표 .88로 나타났다. 전체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타난다.

4회기: 이 회기는 직업계획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로서 이를 위한 보조척도로 일에 대한 가치관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Super(1970)의 일에 대한 가치관 검사(Work Value Inventory: WVI)를 이현립(197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의 가치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일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15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 및 일반 성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하위변인으로는 창의성, 생활방식, 독립성, 경영관리, 안전성, 다양성, 성취성, 협동성, 경제보수, 환경조건, 심미성, 이타주의, 감독관계, 명예심, 지적자극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타난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개인특징 프로파일을 기록한 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개인의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5회기: 내담자가 실시한 성격검사에 대한 해석을 한다. MBTI 성격검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석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는 MBTI에는 16가지 성격유형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군, 학습방법등을 알게 된다. Myers는 제안하기를 대표적으로 외향성의 사람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책상 앞에서 하는 일보다는 사무실 바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내향성의 사람은 혼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 감각형의 사람은 세밀하게 주의와 관찰을 요하는 일을 잘한다. 직관형의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사고형의 사람은 논리적 질서, 사상, 숫자, 물리적 대상과 관련된 일을 좋아한다. 감정형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작업환경이 조화롭고 마음에 드는 일을 원한다. 판단형의 사람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일을 좋아한다. 인식형의 사람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 상황을 다루기보다는 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을 좋

아한다(Myers & McCaulley, 1985). 이처럼 개인의 MBTI 선호도를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기능이나 태도들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6회기: 내담자가 실시한 적성탐색검사를 해석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6가지 RIASEC 코드 중 1순위 코드를 기점으로 자신의 성격특징, 직업선호활동, 적성 유능감, 가치, 생의 목표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들을 탐색한다. 또한 2순위로 나타난 진로코드와 조합하여 좀더 폭넓게 학과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이 회기가 종결되면 과제로 희망직업 목록표를 내담자에게 나누어주고 작성하게 한 후 다음 회기에 활용한다. 이 자료에는 내담자가 희망하는 직업, 부모와 주변친구들이 추천하는 직업, 검사결과 나타난 직업목록들로 채우게 되어 있다.

7회기: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가 마친 후 나누어준 자료를 가지고 나의 현실여건과 함께 직업탐색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직업탐색에 들어가기 전에 21세기 신종직업 및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업(노동부, 1999)들을 살펴본다. 다음은 직업명료화 단계로써 자신이 희망하고 현실 가능한 직업들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좁혀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탐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 명료화시에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직업들은 보편적으로 선택의 폭이 큰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목표로 한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준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방향으로 넓게 선택을 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를 위해서 직업탐색용지를 과제로 내어준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두 세 가지의 직업들에 대해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찾아오는 과정이다. 이는 중요한 과정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직접면담을 통하여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 경우가 가능치 못할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게시판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게 한다. 그 다음은 학교의 취업정보실에 비치된 각종 홍보지를 통하여 자격요건과 전형방법등을 찾을 수 있다고 지도한다.

8회기: 이 회기 초반부에는 지난 회기때 과제로 내어준 직업탐색용지를 발표하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면담을 통하여 느낀점, 그리고 그 후의 자신의 심정의 변화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에는 실제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익히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향후 몇 년 정도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익히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내담자에게 잠시 자신의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 회기 마지막에는 실제 모의 면접상황을 재현하고 면접시에 어울리는 이미지 연출과 대화기술을 익히고 실제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9회기: 이번 회기는 마지막 회기로써 이번 상담을 통하여 느낀 점과 앞으로 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점, 강화시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으로 사후검사로 ACDM검사를 한번 실시하여 본인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변화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

도 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는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Buck, Daniels(1985)에 의해 수정 보완된 Harren(1979)진로의사결정 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중 진로의사결정수준(Part B-D) 부분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의 64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73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Part B)은 24문항으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교우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 직업계획수준(Part C)은 20문항으로 미래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이행의 정도를 나타낸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Part D)은 20문항으로 전공이나 연구분야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이행의 정도를 나타낸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수준별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은 진로의사결정 상담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의사결정 유형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

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후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의사결정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 상담집단과 집단 상담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별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은 진로의사결정 상담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후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진로의사결정 상담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11.30이고,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60이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63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11.60,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73,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66으로 나타났다.

직업계획수준의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6.63이고,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47이며, 사전검사 점수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진로의사 결정유형	집 단		실 험			통 제					
			사전		사후 (수정전)	사후 (수정후)		사전		사후 (수정전)	사후 (수정후)
	M	SD	M	SD	M	M	SD	M	SD	M	
학교에 대한 적응	11.30	4.29	15.60	4.51	15.63	11.60	4.33	10.73	3.37	10.66	
직업계획	6.63	2.55	13.47	3.34	13.70	9.33	4.35	8.47	3.96	8.00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8.06	4.05	16.20	3.57	16.60	12.07	5.81	10.47	5.44	9.68	

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70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9.33,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8.47,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8.00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8.06이고,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6.20이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6.60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12.07,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47,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9.6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결과를 기초로 진로의사결정 수준별 두 집단간 평균치 차이 검증 결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변화

표 3에 나타난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15.63, 통제집단은 10.66으로써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4.98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사전검

표 3. 실험 및 통제집단간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 비교

유 형	집 단	실험($n=30$)	통제($n=15$)	M_1-M_2	SE	F
		M_1	M_2			
학교에 대한 적응		15.63	10.66	4.98	1.224	16.567**
직업계획		13.70	8.00	5.70	1.191	22.867**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16.60	9.68	6.93	1.394	24.705**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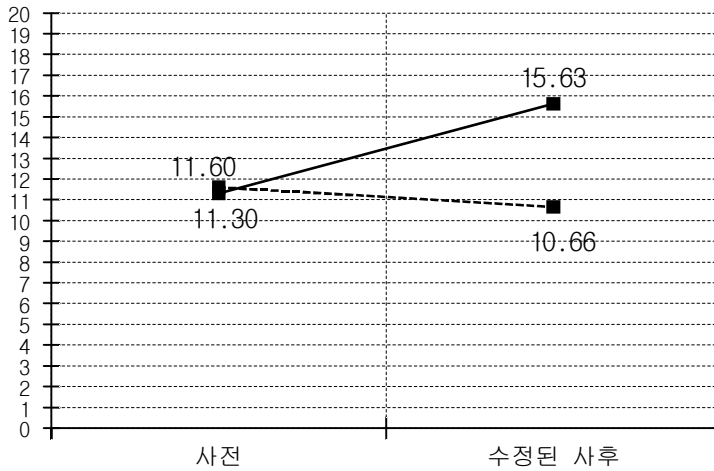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 비교

사 점수 평균에서는 두 집단이 유사하지만 사후 검사 점수 평균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상담이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계획수준의 변화

표 3에 나타난 직업계획수준의 평균치를 살펴 보면, 실험집단은 13.70, 통제집단은 8.00으로써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5.70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의 검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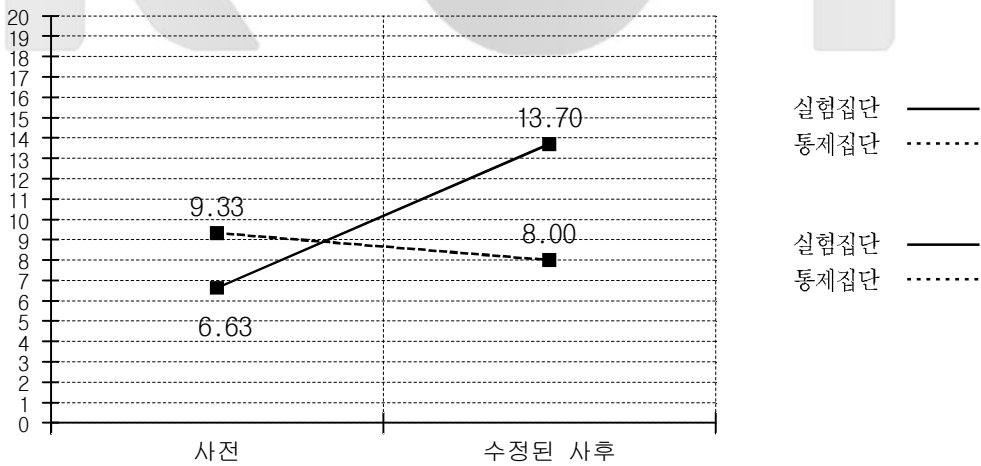


그림 2. 직업계획수준의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 비교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계획수준의 사전검사 점수 평균차이보다 사후검사 점수 평균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상담이 직업계획수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변화

표 3에 나타난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16.60, 통제집단은 9.68로써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6.93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의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사전검사 점수 평균차이보다 사후검사 점수 평균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상담이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결과를 보면, 개인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9.80이고,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40이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86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12.80,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80,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34로 나타났다.

직업계획수준의 결과를 보면, 개인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6.47이고, 상담처치 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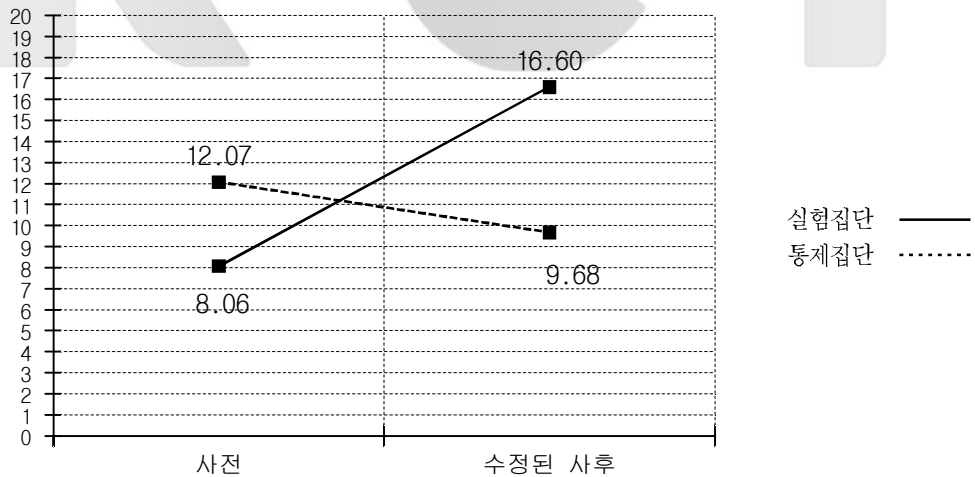


그림 3.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 비교

표 4.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진로의사 결정수준	집단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전		사후 (수정전)		사후 (수정후)	사전		사후 (수정전)		사후 (수정후)
		M	SD	M	SD	M	M	SD	M	SD	M
학교에 대한적응		9.80	3.51	15.40	4.82	15.86	12.80	4.59	15.80	4.35	15.34
직업계획		6.47	2.75	13.93	3.45	13.90	6.80	2.43	13.00	3.27	13.03
전공에 대한확신 및 이해		8.93	4.95	16.80	3.19	16.76	7.20	2.81	15.60	3.92	15.64

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93이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90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집단은 사전 검사 점수 평균이 6.80,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 검사 점수 평균은 13.00,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03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결과를 보면, 개인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8.93이고,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6.80이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6.76으로 나타났다. 집단 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이 7.20, 상담처치 후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60,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64로 나타났다.

표 5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수정

된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에 있어서 개인상담집단 과 집단상담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아래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수준별 두 집단간 평균 치 차이 검증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표 5에 나타난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개인상담집단은 15.86, 집단상담집 단은 15.34로써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52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의사결정 상담집단간의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변 화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업계획수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개인상담 집단은 13.90, 집단상담집단은 13.03으로써 두 집 단의 평균차이는 .87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 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상담집단간의 직업계획수준 변화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후검사 점수 평균치 비교

유 형	집 단	개인(n=15)	집단(n=15)	M ₁ -M ₂	SE	F
		M ₁	M ₂			
학교에 대한 적응		15.86	15.34	.52	1.756	.089
직업계획		13.90	13.03	.87	1.243	.498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16.76	15.64	1.12	1.360	.677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개인상담집단은 16.76, 집단상담집단은 15.64로써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1.12이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상담집단간의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 변화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진로의사결정 상담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로의사결정 수준변화에 있어, 진로의사결정 상담을 받은 집단은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 보다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과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ubinton(1980), Barak와 Feiedkes(1981), Sherry와 Starey(1984), Buck, Daniels, Harren, Krinsky와 Moreland(1985), Cooper(1986), Guido(1987), Rowe(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향자(1992)와 김관환(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상담 받은 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변화에 있어 직업계획수준과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진로의사결정 세 수준이 모두 향상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는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변화에서 연구결과간의 차이가 보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위의 두 선행연구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내에 실제로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받는 학생들의 학교에 적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이란 학교생활, 교우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적응, 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상담 5회기 때 상담 받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먼저 상담 받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확인하고, 다음은 학교 생활 중 가장 고민되는 부분과 실제로 자신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원만한 적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담종결 후 사후검사 결과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점수가 사전검사 결과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담 받은 학생들이 실제 행동에서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된 결과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상담 받은 기간 내에 학교 및 학과가 좋아지고 학과 친구 및 교수에게 친밀감이 느껴져서 수준점수가 향상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 부적응에 대한 문제 원인을 알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애착심과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의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진로 상담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간의 유대관계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인상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학교에 입학 할 때의 상황, 학교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여부, 현재 학과 내에서의 친구유무 등이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적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동 방향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업계획수준은 상담 받은 집단이 상담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사후검사결과 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계획수준 부분이 진로상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궁극적인 진로상담의 목표가 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진로상담을 통하여 진로고민이 사라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상담을 처음 신청할 때에는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지 못해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진로방향을 찾음으로 인해 직업계획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직업계획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화한 상담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성격 및 적성검사를 통하여 자기이해시간을 가진다. 다음은 검사결과 나타난 적합한 직업군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현실여건에 맞는 직업군들을 찾아서 이를 구체화시킨다. 구체화된 직업을 성취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그 직업의 교과과정과 학습방법, 졸업후의 취업현황, 취업경로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과의 면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학과 교수님과의 면담, 선배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그후 자

신의 현실여건에 맞추어 직업을 확정하고, 직업계획을 세워봄으로써 직업계획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들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로는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과 유망직업들, 사라지는 직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직업탐색이 가장 중요한 상담목표임을 감안해 볼 때, 진로상담가는 유망직종과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받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로상담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진로상담가는 내담자의 정서나 대인관계 등과 같은 심리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가와와는 차별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한발 앞선 정보획득과 다양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진로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종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파악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에 있어서도 본 연구결과 상담 받은 집단은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을 파악한다. 그리고 탐색된 자신의 직업과 현재의 전공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후 전공학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진로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와 졸업 후 취업방향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음을 감안해 볼 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전공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냄으로써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전과나 편입을 계획할 경우에도 전공학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현재의 전공공부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소홀히 대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 종결 후 실시한 사후검사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수준이 향상된 것은 직업성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전공 공부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소홀히 생각했던 전공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된 결과의 반영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상담 받은 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집단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은 두 집단 모두 향상되었으며,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간의 효과를 비교한 김관환(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있어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상담 실시 후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Guido(1987)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간의 상담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상 두 집단간의 상담효과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순서에 맞게 회기별로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총 9회로 구성된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순서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집단상담은 물론이며, 개인상담도 개인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별 시작과 종결이 다른 내담자들과 집단상담원들과 비교해서 개인차가 나지 않도록 한 점이 가장 주의한 부분이었다. 셋째, 시간차에 따른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수를 억제하고자 주의를 하였다. 개인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 시간을 50분으로 정하고 이 시간내에 한 회기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의 상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정하고 역시 정해진 시간내에 한 회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시간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내담자의 의견을 발표할 때 발생하는 시간차를 고려한 것이다.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견 교환에 한계가 있지만 집단상담은 여러명의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상담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개인상담은 한 회기 내에서 내담자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하여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중 특히 뒤쳐지는 요인을 바람직한 요인으로 변화시키는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집단상담은 여러 집단원들이 공통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으며, 집단원들간의 역동을 통하여, 진로상담에 활기를 띠고 강화를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두 집단간의 상담결

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조를 한 요인으로는 내담자의 문제가 복잡한 심리문제가 아니라 진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의 뚜렷한 목표에서 출발한 점을 들 수 있다. 상담기간 내내 특별히 상담자의 집중을 요하는 문제로 인하여 진로상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상담은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있어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간에는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방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내담자의 진로 선택에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에 부모 참여 부분을 첨가시켜 내담자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부모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후속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효과에 있어서 집단간의 상담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실제 상담현장에서 상담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

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계현, 김인규, 민경화 (2000).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성희 (1998). 대학신입생 실태 변화 분석: 경북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지도연구, 31(1), 41-75,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수연, 이은경 (1996). 이화여대 신입생의 특성변화: 1990학년도부터 1996학년도까지. 학생생활연구, 32(1), 32-52,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김은산, 김경창, 이시은 (2000).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3, 77-110,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정택, 심혜숙 (1991).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희, 장현덕 (1991).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지도상담, 16, 54-100,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지영 (2000). 1999학년도 충남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학생생활연구, 27, 133-169,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관환 (1997).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방법과 불안 및 자존감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동부 (1999). 한국 직업전망서. 서울: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연구부 (1999). 1998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연구. 인간이해, 20, 155-177.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창규 (1996).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이수용 (1986). 진로상담을 위한 가치명료화 프로

- 그램. 지도상담, 11, 95-123,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재창 (1992).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활용. 대학생활연구, 10, 19-36,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영 (1997). 청소년 진로발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 (197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관. 학생생활연구, 8, 17-24,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현림 (2000). 진로상담의 이해.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효자 (1993).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학생생활연구, 5, 157-193, 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체가 (1992).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진로의사결정훈련: Work book.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Barak, A., & Friedkes, R. (1981).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ndecision subtypes on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20-128.
- Buck, J. N., & Daniels, M. H. (1985).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uck, J. N., Daniels, M., Harren, V. A., Krinsky, E., & Moreland, J. R. (1985). *WPS career planning program: Leader's handbook*.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Cooper, S. E. (1986).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Guido, M. A. (1987). *Self-esteem, anxiety and locus of control as moderator variables in career maturity gain after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A guide to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we, K. L. (1995).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Rubinton, N. (1980). Instruction in career decision making and decision 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81-588.
- Sherry, P., & Starey, K. (1984). Career exploration groups: An outcome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55-159.
- Smith, R. D., & Evans, J. R. (1973). Comparisons of experimental group guidance and individual counseling as facilitators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202-208.
- Spokane, A. R. (1992).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uper, D. E. (1970). *Manual for the Work Values Inventory*. Boston: Houghton-Mifflin.

원고접수일 : 2001. 9.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2. 20

게재결정일 : 2002. 2. 28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Ji-Young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un-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which used a career decision-making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first,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of a group of students who have taken career decision-making counseling and a group of students who have not; second,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of a group of students who have taken individual career decision-making counseling and a group of students who have taken collective career decision-making couns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an draw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career counseling using a career decision-making program could enhance students' school adjustment, occupational plans, and academic majors. second, it appeared that there was not a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 counseling and collective counseling, both of which utilized a career decision-making program, in their effects on improving decision-making statuses. the fact would be useful in selecting actual counseling methods.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program,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individual counseling, collective counseling